

2024학년도 2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배려가 사라진 임산부 배려석]

이름	김은영
전공	사회학과
학번	20240390

배려가 사라진 임신부 배려석

-지하철 내 임신부 배려석 제도의 실효성 문제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신부 배려석 제도 소개

- 1) 도입 배경
- 2) 운영 현황

2. 임신부 배려석 제도의 실효성 문제 원인

- 1) 사회적 합의 불일치
- 2) 이용 가능자 불명확
- 3) 비 임신부의 무분별한 이용

3. 기존 해결책 소개 및 한계

- 1) 부산시 핑크라이트 제도
- 2) 광주시 음성 안내 시스템 제도
- 3) 서울시 입장을 통한 한계점 파악

4. 해결 방안 제언: 임신부 우선순위석 제도

- 1) 목적 및 필요성
- 2) 특징
- 3) 운영 방식
- 4) 기대 효과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역사도 있지만 이제는 합계출산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며 저출산 지표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1명이다. 즉 이제는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0명대에 돌입했으며 그 후로 소수점에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국가의 존립 위기가 닥쳐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임산부 배려석 제도'이다.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출산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시민들 간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의 사회적 논란으로 변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사회적 논란이 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으로서 '임산부 우선순위석' 제도를 제언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임산부 배려석 제도 소개

1) 도입 배경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 제도는 2008년 서울시 버스관리과에서 분기별로 테마에 따른 해피버스데이(HappyBusDay)캠페인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 9월 처음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도입하였다고 한다(김지영, 2011.03.15.). 지하철에는 2013년 서울교통공사가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임산부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역차별 등의 논란이 생기며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2) 운영 현황

호선	설치 대상	설치 수량	비고
1~8호선 전동차	3,667	7,334	칸당 2석 설치 [중앙좌석(6~7인)의 양 끝 쪽 2자리]
9호선 전동차	318	636	
우이신설선 전동차	36	72	
신림선 전동차	36	96	편성당 8석 설치

<표1. 서울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설치현황> ('24.10월말 기준, 단위: 칸).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 (2024.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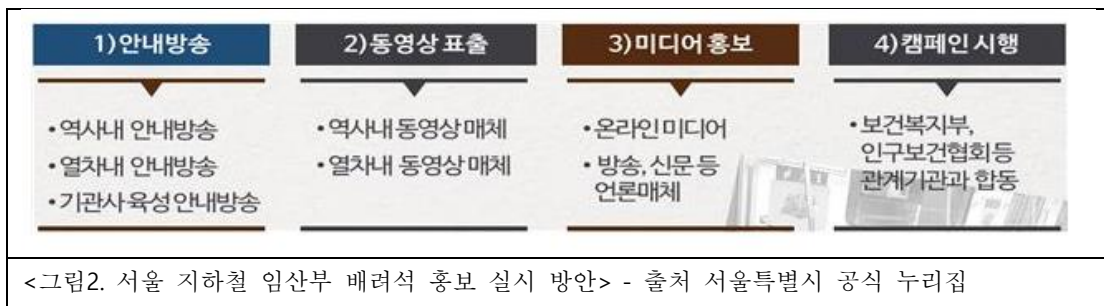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임산부 배려석 총 설치 비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2015년 4월 14일 자 KBS 뉴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스티커 부착에 쓴 예산만 3천 4백여만원'이라고 한다(최준혁 기자, 2015.4.14.). 이때의 임산부 배려석은 지금과 같은 분홍색 좌석이 아닌 의자 뒷부분에 엠블럼 스티커만 붙어있는 디자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이후 디자인 변경, 좌석 수를 확대한 후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디자인 변경 및 홍보와 관련된 점은 아래 <그림1>과 <그림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변경 전(상단), 변경 후(중양 및 하단)

기존 디자인은 사람이 앉았을 경우 눈에 잘 띄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생겨 2015년부터 현재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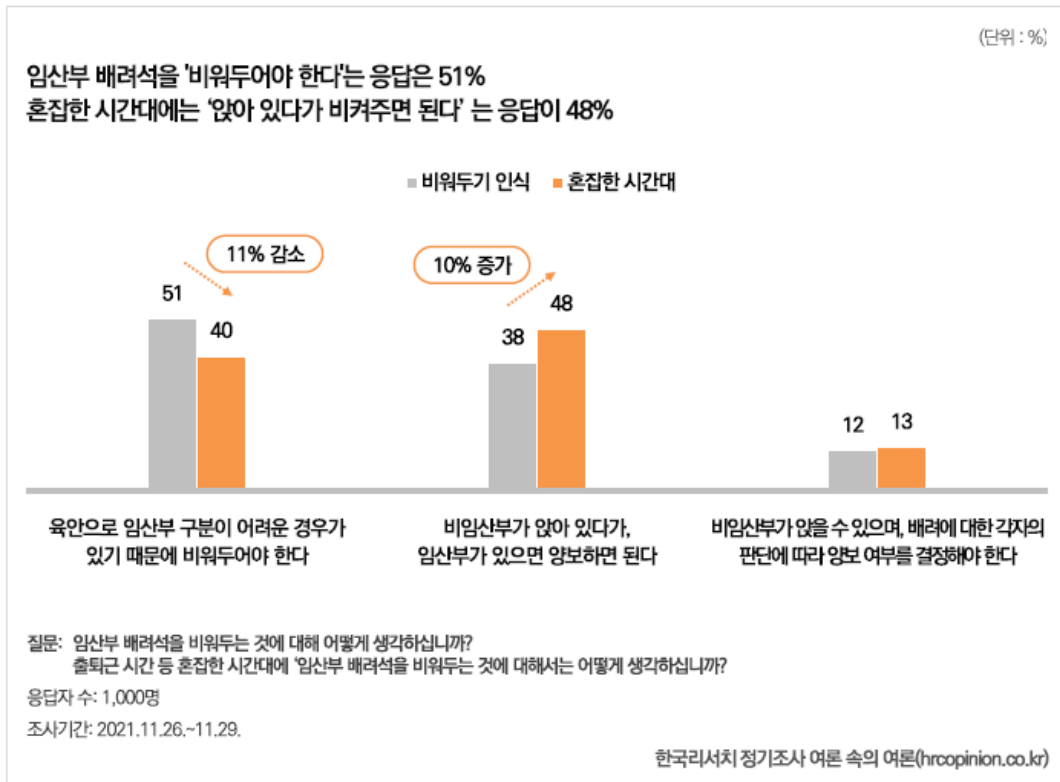
출처:
신아일보(2015.1.12).



2. 임산부 배려석 제도의 실효성 문제 원인

1) 사회적 합의 불일치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석 및 임산부 배려석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85.8%'가 나왔다(트렌드모니터, 2022.). 대부분 임산부 배려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가?'라는 논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한국리서치의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어야 한다(51%)", "앉아있다가 임산부가 있으면 양보하면 된다(38%)", "비임산부가 앉을 수 있으며, 배려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양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2%)"는 결과가 나왔다. "혼잡한 시간대에는 앉아 있다가 비켜주면 된다"는 응답 비율이 10% 증가하였다' (이소연, 2022.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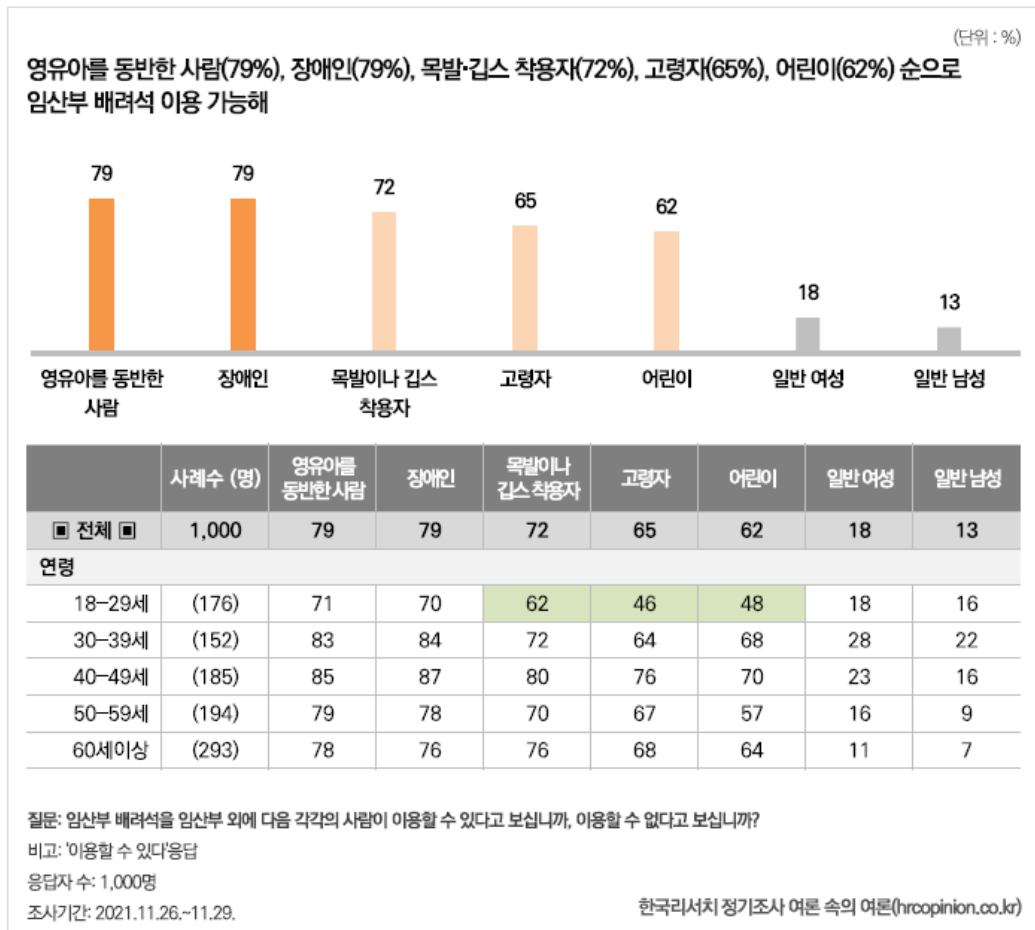


<그래프1.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불일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1.19.).

이러한 조사 결과는 임산부 배려석의 정확한 이용 규칙이나 체제가 없어 사회적 혼란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임산부 배려석을 항상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2024.7.30.). 다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앉아도 되는지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어 시민 간 의견이 분분하다.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확립된다면 실효성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이용 가능자 불명확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오로지 임산부만을 위한 좌석인지, 임산부가 아닌 교통약자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79%)”, “장애인(79%)”, “목발이나 깁스 착용자(72%)”, “고령자(65%)”, “어린이(62%)”라는 결과가 나왔다(이소연, 2022.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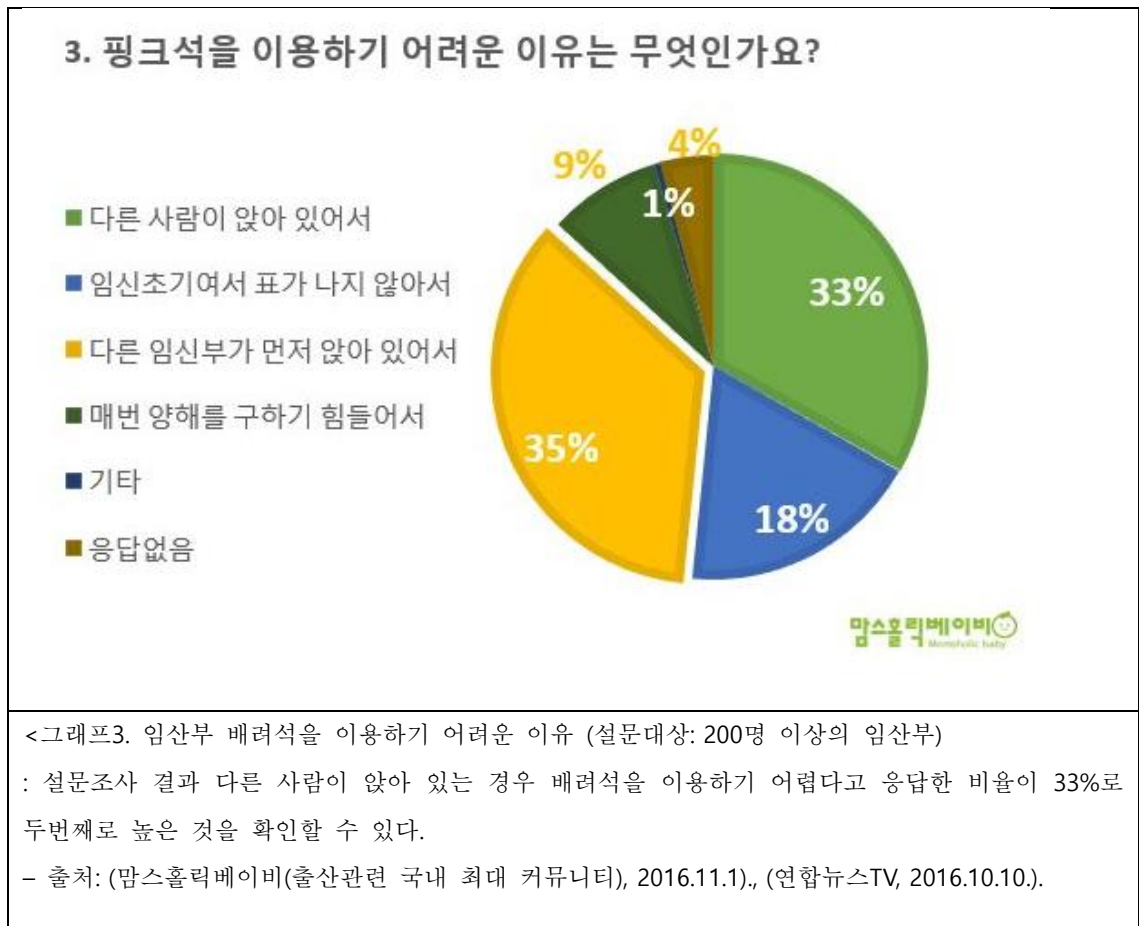
<그래프2. 임산부 배려석 이용가능자 설문조사>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1.19.).

조사 결과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에 누가 앉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용어에서 생겨난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교통약자석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용어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하면 임산부만이 앉을 자격이 있는 좌석인지, 말 그대로 임산부를 '배려'하기만 하면 되는 좌석인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후자로 이해했을 시 원인 3인 비임산부의 무분별한 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산부를 위한 좌석임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누가 앉을 수 있는 좌석인지 정확한 규정이 없기에 실효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3) 비임산부의 무분별한 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23년 실시한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1000명) 중 86.8%가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42.2%가 임산부 배려석 이용 시 "일반인이 착석 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65.5%)" 불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임산부 배려석 이용 경험이 없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앉아있

는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민폐)을 주는 것 같아서(23.5%)” 배려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23.12.21.](#)).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헬로홈즈)에서 진행한 사회실험 영상에 따르면 임산부가 배려석 자리를 비켜달라 부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라고 언급한다(헬로홈즈, 2018.5.15.). 설문조사와 사회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비임산부가 배려석에 앉아있을 시 임산부는 자리 양보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이 임산부 배려석 실효성 문제를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원인 1과 원인 2로 인해 발생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임산부가 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3. 기존 해결책 소개 및 한계

1) 부산시 핑크라이트 제도

아시아경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가 2017년부터 전국 도시철도 기관 최초로 ‘핑크라이트 제도’를 도입하였고, 발신기를 소지하거나 핑크라이트 모바일 앱을 실행한 후, 임산부 배려석에 접근하면 좌석에 설치된 수신기가 깜빡거리며 자리 양보를 권하는 음성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조충현, 2024.10.8.). 오거돈 前 부산시장은 “핑크라이트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업이다”라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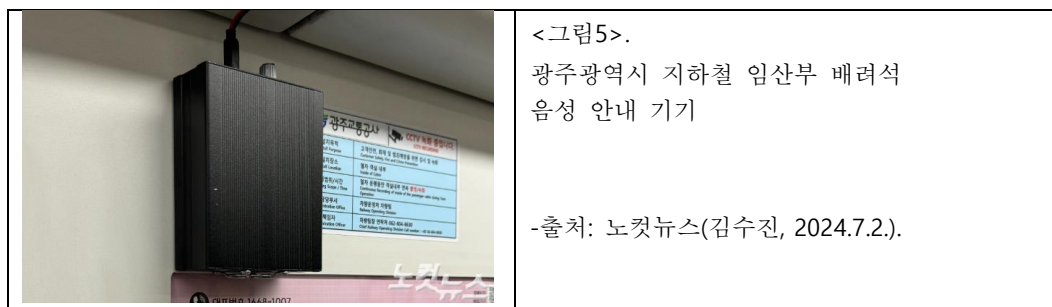
했다(이지윤, 2018.11.21.). 임산부가 앉아 있는 사람에게 직접 자리 양보를 권하지 않아도 되고 비임산부가 앉기에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며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림3> 부산지하철 내 설치되어있는 핑크라이트(좌)
 <그림4>. 핑크라이트 모바일 앱(우)
 -출처: (좌)부산광역시 대표 공식 블로그, 2019.7.29.
 (우)부산광역시 대표 공식 블로그, 2024.5.20.

2) 광주시 음성 안내 시스템 제도

광주 지하철에서도 부산시와 유사한 방법으로 임산부 배려석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적외선 센서를 통해 착석 여부를 인식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기기에서 “고객님께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고객님의 임산부가 승차하면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김수진, 2024.7.2.). 비임산부가 배려석에 앉는 빈도를 줄이고 임산부 배려 문화가 자리 잡히는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되었다. 타지역과 차이점이 있다면 직원의 자체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이 직접 음성 안내 기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기 1대당 12만원가량의 적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었고, 전동차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였다고 한다(김수진, 2024.7.2.).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까지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라 생각한다.



<그림5>.
 광주광역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음성 안내 기기
 -출처: 노컷뉴스(김수진, 2024.7.2.).

3) 서울시 입장을 통한 한계점 파악

중앙일보에 따르면 부산시와 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서울시에서도 도입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서울시는 거액의 비용(설치비 46억원, 유지보수비 연 2억원)이 추정되고 반복적인 불빛이나 경고음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를 전 열차에 도입하기 어려움을 표했다고 한다(배재성, 2024.6.27.). 서울시의 지하철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적 측면에서 광주시 사례를 고려하면 서울지하철 내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 반복적인 불빛과 음성 안내음이 많은 승객에게 불편함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은 아직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4. 해결 방안 제언: 임신부 우선순위석

1) 목적 및 필요성

부산시의 '핑크라이트' 제도와 광주시의 '음성 안내 시스템' 제도 모두 비자발적 배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비임산부가 앉았을 때 양보를 권하는 음성 안내와 불빛이 작동하는 것은 다른 승객들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은 수치심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배려만 유발하는 것이다. 비임산부뿐만 아니라 임신부 또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센서에 의해 자신이 임신부임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방식이 아닌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배려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임산부 우선순위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특징

'임산부 우선순위석' 제도는 '임산부 배려석'과 같이 특정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좌석을 양보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신부 배려석처럼 임신부만을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거나 노약자석에 노인, 임신부, 장애인, 어린이 동반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만이 그냥 나열되는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규식 한남대 프랑스어문화학과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는 "1) 전쟁 상이용사 2) 민간 시각장애인, 산업 재해환자와 장애인 3) 임신부, 4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 4) 75세 이상의 노인" 순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높은 순위가 착석 우선권을 갖는다고 한다(중도일보, 2010.1.28.). '임산부 우선순위석' 제도는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이며 명칭 그대로 임신부가 1순위로 배려받을 수 있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이다. 순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어느 순위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앉을 수 있다.

3) 운영 방식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임신부 우선 순위석이 어디에 있는지 혼동하지 않기 위해 열차 맨

앞과 맨 뒤 칸에 각각 8개씩 배치한다. 임신부 우선 순위석에는 기존의 분홍색 좌석과 스티커, 문구를 모두 제거하고 일관된 색상의 시트지를 붙인다. 이때 경고적이고 명확한 경계를 나타내었던 기존의 분홍색이 아닌 파스텔 색상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자연스러운 구분을 제공한다. 이 아이디어(색채상징화)는 성정아. “배려를 위한 공공사인 디자인 연구” 논문에서 착안했다. 성정아는 열차 내부뿐만 아니라 역사 안의 배려와 관련된 시설이나 문구에도 일관된 색상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내재적으로 해당 색상이 배려의 신호임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성정아, 2021: 53~64). 이 아이디어와 임신부 우선순위석 제도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

4) 기대 효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대구에서 임신부 우선 이용 좌석을 임신부가 없을 때 비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는 임신부 우선좌석제를 운영했다고 한다(김장욱, 2014.11.20.). 하지만 대구신문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후에도 임신부 좌석에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한다(배정진, 2017.7.3.). 혹자는 두 기사를 통해 필자가 제안한 해결 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구에서 실시한 임신부 우선좌석제는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다. 단순히 임신부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의 좌석과 동일하다. 둘째, 대구신문에서 비임산부가 임신부 우선좌석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기사를 통해서 앉았을 당시에 임신부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만약 임신부가 없었을 때 비임산부가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필자가 제안한 해결 방안 취지에 적합하다.

지금 시행 중인 임신부 배려석 제도는 비자발적 배려를 이용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제도이다. 이와 달리 '임산부 우선순위석' 제도는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부터 비교통약자까지 배려가 자발적이고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더 나아가 일관된 색상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해 배려 신호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현재 설치된 노약자석에도 적용하여 기존보다 더 넓은 좌석을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노약자석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두가 합의하여 도출하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노약자석이 경로석으로 인식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배려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든다면 시민 간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배려를 생활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II. 결론

임산부의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함에는 의견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방식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의심되고 있을 뿐이다. '임산부 우선순위석' 제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 배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노골적인 문구나 경고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배려가 필요한 좌석임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심적으로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학술논문]

- 성정아, '배려를 위한 공공사인 디자인 연구: 서울교통공사(지하철) 교통약자 배려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21, pp. 53~64.

[기사 및 칼럼]

- 김수진(2024.7.2.), "'임산부 배려석입니다"...서울지하철은 도입 불가, 광주는 확대",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17102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02050025 (2024.11.17.).
- 김용만(2015.1.12.), '서울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눈에 띄게 바꾼다', "신아일보",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574> (2024.11.17.).
- 김장욱(2014.11.20.), '대구도시철도 임산부 우선좌석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112181828178481?t=y> (2024.11.18.).
- 김지영(2011.03.15.), "'임산부 배려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07988> (2024.11.15.).
- 박해나(2019.4.24.),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부산은 되고 서울은 안 되는 이유', "비즈한국",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17652> (2024.11.17.).
- 배재성(2024.6.27.), "'임산부 배려석에 센서 달자'...시민제안에 서울시 난색한 이유",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494> (2024.11.17.).
- 배정진(2017.7.3.), '넓고 편안해서 너도나도 착석', "대구신문",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73> (2024.11.18.).
- 이규식(2010.1.28.), '[빵의문화 장미의문화]노약자 보호석, 우선 순위는', "중도일보",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100128000000016> (2024.11.18.).
- 이승구(2022.12.10.), "'임산부 아니라면 비워주세요"...지하철서 나오는 음성에 '깜짝'",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10504880?OutUrl=naver> (2024.11.17.).
- 조충현(2024.10.8.), '부산교통공사, '핑크라이트'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이벤트 실시',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0816131658036> (2024.11.17.).
- 황정현(2016.10.10.), '지하철 '핑크석'...임산부 80% "배려받은 적 없다"',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61010019400038?did=1825m> (2024.11.14.).

[영상]

- 최준혁(2014.4.14.), '말 뿐인 지하철내 '임산부 배려석'...예산만 낭비', "KBS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155804> (2024.11.17.).
- 헬로홈즈(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2018.5.15.), '[소셜실험] '저 임산부인데요' 지하철 배려석에

대고 말해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4gS19clNJOc&t=420s>
(2024.11.15.).

[웹페이지]

- 부산광역시 대표 공식 블로그(2024.5.20.), '임산부 배려석 알리미 '핑크라이트 모바일 앱' 부산 시 전국 최초 출시!', <https://blog.naver.com/coolbusan/223452457056> (2024.11.17.).
- 부산광역시 대표 공식 블로그(2019.7.29.), '임산부 배려 '핑크라이트' 도시철도 전 호선 확대 운영',
https://blog.naver.com/coolbusan/221598945807?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2024.11.17.).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함께해요" 서울교통공사, 임산부 배려 캠페인 진행, <http://www.seoulmetro.co.kr/kr/board.do?menuIdx=547&bbsIdx=2218009>, (2024.7.30.).
-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2024.11.11.), '임산부배려석 안내',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27958>, (2024.11.15.).
-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 보도자료(2016.1.15.), '서울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새 디자인 1~8호선 전체 확대', <https://opengov.seoul.go.kr/press/7268226> (2024.11.17.).
- 서울특별시 공식 누리집 대중교통소식(2016.1.15.), '새 옷 갈아입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25714?listPage=1&s=%EC%9E%84%EC%82%B0%EB%B6%80%20%EB%B0%B0%EB%A0%A4%EC%84%9D> (2024.11.17.).
- 이지윤(2018.11.21.), '임산부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 부산시 핑크라이트 사업-2018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부산광역시 공식 누리집 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nbtnews/1350592> (2024. 11. 17.).
- 통계청, '합계출산율의 정의',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09>
(2024.11.17.).

[설문자료]

- 맘스홀릭베이비(2016.11.1.),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려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389508&memberNo=3265970&vType=VERTICAL> (2024.11.14.).
-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 '좌석 비워두기, 배려일까 의무일까? 사회적 합의 필요한 교통약자석', 대중교통 내 '교통약자석' 및 '임산부 배려석' 관련 인식 조사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310&code=0401&trendType=CKOREA>

- 이소연(2022.1.19.), [기획]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비워둬야 할까? - 임산부 배려석 이용 가능 대상,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모색,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https://hrcopinon.co.kr/archives/20679> (2024.11.15.).
- 인구보건복지협회(2023.12.21.), '2023 임산부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결과' <https://www.ppfk.or.kr/data-board/brochure-detail/41> (2024.11.14.).